

제 93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2년 3월 12일 상오 10시 25분
2. 폐 의 : 단기 4292년 3월 12일 하오 1시 4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2명
결석 천철수, 박두순, 김창희, 김남진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 (건설과장제외)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제 92회 제 2, 3, 4차 회의록 통과
- (2) 각 진정서 왕복사항 보고
- (3) 감사장 전달 상황
- (4) 목포 나주간 상수도선로 관리 유지에 관한 약정사항 보고
- (5) 아동결핵 병원 유치추진상황 보고

◆ 부의안건

- (1) 목포시세 조례중 일부 개정의 건
- (2) 목포시 소방세 조례중 일부 개정의 건

8. 토의사항

- ◎ 제 92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 92회 제 3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 92회 제 4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각 진정서 왕복 사항 보고

◇서기 박 찬 대

- 교통부 부흥부 해무청 등에 진정한 조복 사항의 보고가 있었음.

◎ 감사장 전달 상황보고

◇서기 박 찬 대

- 현주교에게 증정한 감사장 전달 상황 보고가 있었음.

◎ 목포 나주간 상수도선로 관리 유지에 관한 약정사항 보고

◇하 시장

- 도지사주재로 개최된 관계 읍면장간 회의 상황보고가 있었음.

◎ 아동 결핵병원 유치 추진상황 보고

◇강 영 락 의원

- 본 건 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음.

◇의장 김 상 섭

- 부의안건 상정을 선언 하다.

◎ 목포시세조례 중 개정안

◎ 목포시 소방세 조례 중 개정안

◇서기 박 찬 대

-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강 영 락 의원

- 양 건 공히 전문 위원회에 회부심의케한 후 금일중으로 의결토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성 균 의원

- 집행부 전과장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공하여 질의를 전개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성 균 의원

- 상수도 공사 추진의 애로를 타개하기위하여 재목언론인들이 선봉을 서서 2회에 공하여 나주읍까지 래왕함으로서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한데 대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대집행부 질의로

- 1) 의회계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 2) 지방자치법 개정책자를 구득할 방도는 없는가
- 3) 금춘의 유달산록 녹화 대책여하
- 4) 우육상 전 업체가 휴점 이유여하
- 5) 노동자와 기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권한의 한계 여하
- 6) 부두 노동자의 행패가 극심한데 대한 대책 여하
- 7) 5인이상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고용상황을 아는가
- 8) 최근에 사회과내에서 모 폐병환자가 음독 자살을 기도하였다는데 그 진상 여하
- 9) 토지 취득세 납부 해당자의 동정세 부과 상황 여하
- 10) 모일간 신문 지상에 목포는 암흑가라고 평한 구절도 있거니와 가로등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가
- 11) 시내소재 각 공장은 기백톤씩의 급수를 하는데 반하여 학교측에 급수시설을 안해준 이유여하

12) 기류부의 경신을 안해준 이유여하

◇강 영 락 의원

- 김성균 의원의 질문도 있거니와 시내 각 식육업자가 국제첨가소화를 이유로 동맹 휴업을 하고 있다는바 이에 미치는 시민의 영양 보급의 악 영향 등을 고려하여본 일이 있는가

◇정 응 표 의원

- 목포역전 광장이 우계(우기)가 되면 홍수사태가 되는데 이의 배수 구멍을 크게 늘림으로서 물빠지는데 용이하게 만들 용의는 없는가

◇김 일 섭 의원 긴급동의

- 당시의 교통사정은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한 위치에 노여있는바 그 예를 들어 대반동서 사범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은 무려 1시간이상을 도보하여야 등교하게 되는 시정이오니 시내 버스의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바 이튼차 모업자가 본건 설치원을 관계 당국에 제출할 모양이니 당 의회의 결의로써 교통부 장관에게 조속허가 건의를 제출토록 할 것을 긴급 동의하다.

◇강 영 락 의원

- 김일섭 의원의 동의 골자는 납득되는 바이나 당시는 타시와 같은 시가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시내 버스를 설치함으로써 이에 미치는 교통사고등 악영향을 염려안할 수 없는바 본 건을 관장한 관계관서나 시민의 여론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일응 보류함이 좋을 것 같다.

- 김 성 균, 김 상 대 의원 찬성 발언하다.

◇의장 김 삼 성

- 본 건에 대하여 당시와 비등한 위치에 있는 마산시는 시영으로 시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설치를 절실히 요청하는 바이다. 본 건을 일응보류하드라도 이에 대한 연구위원을 결정하여 제반사정을 검토토록 함이 좋을 것 같다. 이의 연구위원으로 김일섭, 김성균, 강영락 의원을 지명하다.

◇의장 김 삼 성

- 오전 회의 휴회를 선언하다. (상오 11시 45분)

- 하오 회의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1시)

◎ 내무분과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김 일 섭 의원

- 부의안건 1항 목포시세조례 개정안과 2항 목포시 소방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습니다.

◇의장 김 삼 성

- 양 건 상정을 선언하다.

◎ 목포시세 조례 중 일부개정안

◎ 목포시 소방세 조례 중 일부 개정안

◇정 응 표 의원

- 양 건 공히 원안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집행부 측 답변

◇하 시장

- 의회계 신설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계의 신설은 한정된 TO의 범위내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려면 타의1계를 없애야 되는 것이며 아직껏 시정 계에서 의회사무를 관장하여 별다른 과오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으나 의원 각위의 요청이시라면 고려하여 보겠습니다.

◇장 총무과장 답변

- 1) 지방 자치법 개정된 책자는 그 개정 조문만을 발췌하여 등사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2) 식육상에 대한 국채첨가 소화문제는 현재는 시에서 그 증권 취급을 아니하고 은행에 이관하였습니다. 만은 재무부령으로 제정된 제증명 발급시 즉 도살허가 시의 소정 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다면 그 행정책임자가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므로 불가 부득이한 것입니다.

◇김 산업과장 답변

- 1) 유달산 녹화 문제는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15도 경사지인 해지점의 녹화추진이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만은 도의 협조로 식수한 아가시아 15만본이 좋은결과로써 성육하고 있으며 금년 춘계에도 식수할 계획입니다.

- 2) 시내 식육상 휴업문제는 알고있으나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채첨가소화는 시의 자의로써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박 재무과장 답변

- 1) 토지 취득세 납부자에 대한 동정세 부과는 각기 경작면적을 봐서 소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호별세 부과후의 납세의무자 이동은 대개 소액납부자가 많은바 이러한 부분은 수시 조사하고 있으며 시외 이동자는 관계 시 읍 면장에게 위촉하여 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 총무과장 답변 (건설과 소관)

- 1) 배수지구역내의 녹화 문제는 금춘에도 플라타나스 오백본을 주문하여 사범학교 뒷산에 식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2) 가로등 증설 문제는 금년 예산에 계상된 10등으로써 지극히 필요한 장소에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역전광장 배수혈(구멍) 문제는 조사하였던바 잘 빠지도록 되어있습니다.

- 4) 시내 각 학교수도시설문제는 해방 후 신설된 유달중학교와 사범부속 학교등인데 이러한 곳에 수도를 시설하게되면 시내 각지의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고로 현재의 실정으로는 부득이 한 것입니다.

◇박 사회과장 답변

- 1) 노동법에 보장된 시장의 권한 한계는 문서의 진달 관계 등입니다.
- 2) 5인이상의 고용원을 가진 기업체를 말씀하시나 10인 이상의 수용처가 71개소 있습니다.
- 3) 부두노동자의 행패 문제는 관계당국의 신중한 단속으로써 종전보다는 시정되었다고 보아지며 현재는 노총자제에서도 이 방면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당국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오니 시내 각계각층의 협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 4) 사회과내의 자살미수 사건은 거3월 3일 상오 11시경 30세 가량의 극도로 쇠약한 청년이 래시하여 병원에 입원 가료하여줄 것을 요청하기로 현재의 시의료 시설로서는 본인의 요구대로는 안되것기에 응급치료라도 하도록 주선하였으나 본 인이 거부하고 식사제공도 거절하며 그 순간 차 곱부에 무슨약을 타 먹었는데 본인이 말하기를 쥐약을 먹었어도 안죽는다고 신음하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당황하고 적십자 병원에 옮겨 응급 치료를 가하였으나 본 인은 원래 폐결핵 만성환자로서 그 생명을 도저히 구하기 어려운 형편인자로서 적십자 병원 당사자들도 머리를 흔들지경이었으나 신신 부탁하여 치료를 애걸하여 두었든바 거 3월 7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정 호 병 과장 답변

- 기류부 신조문제는 그 사무적으로 동적부 정비가 우선 급한 형편으로서 복잡다단한 실정이나 현금 그 준비단계에 있으니 단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 성 균 의원

- 가로등 신설문제에 있어서 예산 면에 계상된 10등의 증설만을 말하나 다른 예산을 절약하여서라도 변방동의 요소에 많은 가로등을 증치하여 주도록 각 별 유의하여주기 바라는 바이다.

◇의장 김 삼 성

- 폐회를 선언하다. (하오 1시 45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3월 13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임 석 희

작성자 서기 주 도 식